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22-30]

설교자: 마티아스 샷트 (Matthias Schat)

22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26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28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29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30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때때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그 분에게서 우리가 듣기 편한 것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깨닫도록 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 앞에 놓인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십시오.

1, 들어오라 부르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곳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가시던 길에, 그 분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그 분께서는 자신을 따르는데 치려야 할 희생에 대해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아마도 제자들의 질문 너머 그 이상이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누가복음 13:23). 예수님은 “그렇다, 오직 적은 수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구원받게 될 사람의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작은 무리에 우리가 속해있나 라는 것에 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구원을 얻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문을 통과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노력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큰 위협들 중 하나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위선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전부되신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처럼 흉내 내며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2, 지체됨의 경고: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본문 25-27에서 이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언젠가 닫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동안 가르침을 귀로 들었으나 그 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구원의 좁은 문의 안쪽에 계신 나 자신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바깥쪽에 머물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구원자를 알고 믿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너무 지체하지 마십시오.

3, 뒤집힌 기대들: 오늘 설교본문 29절엔 모든 나라에서부터 모인 사람들이 그 분의 왕국에서 그 분의 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스스로 천국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 된 자가 항상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된 자, 최고로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는 자가 항상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자랑으로 삼거나 혹은 오랫동안 교회생활을 한 경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만이 천국을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좁은 길을 통과하는 길이며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소유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